

“국민 생명·재산 수호...정성치안 힘쓰겠다”

●함평 서부파출소 이주홍·이경행 경위

밤바다서 계잡이 중 방향 잃고 고립된 노인 구조 ‘골든타임’ 확보 해경 도착 전 바다 뛰어들어 구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직무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함평 서부파출소의 이주홍(52·사진 왼쪽)·이경행(53) 경위가 밤바다에서 계를 잡다 홀로 고립된 노인을 구조, ‘정성치안 구현’ 등 귀감이 되고 있다.

24일 함평 서부파출소에 따르면 이주홍·이경행 경위는 지난 24일 오후 9시45분께 “계를 잡으러 간 일행 중 한 명이 실종됐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았다.

당시 서부파출소의 야간 근무자는 두 경위

로, 이들은 신고를 받자마자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서 파악한 사고 경위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새마을 앞 바다로 주민 8명이 계를 잡으러 나갔고 일행 중 1명인 A(88)씨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이에 두 경위는 119와 해경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협조 기관이 도착 할 때까지 혹시 모를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즉시 구조 조치에 나섰다.

이경행 경위는 주변에서 장화를 빌려 신고 목격자 얘기에 따라 요구조자 A씨가 있을 만한 위치 쪽으로 방향을 잡아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이주홍 경위는 백사장에서 라이트를 비추는 등 등대 역할을 맡았다. 바다로 들어간 이경행 경위는 오후 11시에 약 200m 바다 안쪽 빨밭에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다. /함평=김연수기자

약 200m의 밤바다 갯벌과 짙은 어둠 그리고 만조시간이 다가오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으나 두 경위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A씨를 골든타임 내에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후 A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병인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바다 한 가운데서 계잡이를 하던 중 일행과 멀어졌고 방향 감각을 잃어 홀로 고립돼 불안감에 떨다 탈진해 바다에 누워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홍·이경행 경위는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함평경찰의 고유 임무이고, 경찰이 확보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주민의 안전”이라며 “앞으로도 정성치안 구현에 앞장서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추진, 언제 어디서나 담당함평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기자



담양경찰, ‘수사파트너십 포럼’ 회원 위촉

담양경찰서는 24일 “수사경찰 추진 정책 홍보·피해자 보호 연계 등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 파트너십 포럼 회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수사 파트너십 포럼 회원은 지역 내 활동력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경찰·수사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 ▲수사경찰 추진 정책 홍보 ▲보호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나 수사경찰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보호받지 못한 지역민들 연계 ▲지역내 특수관계로 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필요 조치를 받지 못한 사례 제보 ▲불법행위 장소 단속 요청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권현오 담양경찰서장은 “수사 파트너십 포럼 회원들에게 지역 내 범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나 수사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들이 있으면 연계해 주도록 당부했다”며 “수사 파트너십 포럼이 활성화 돼 ‘안전한 담양 만들기’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성균기자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취약계층 생필품 전달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은 24일 “여수시노인복지관과 함께 지역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25세대에 250만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필품 전달은 곧 다가올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에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고자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박수성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본부장은 “지역 사회의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

층 세대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여수시노인복지관 관장은 “경기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은 여수지역 내 사랑의 밑반찬 지원, 집수리 서비스, 경로당 위문잔치, 독거노인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김진선기자



전남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 선정

전남도가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해 접종률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점을 인정받아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24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문가 포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과 함께 광역지자체 부문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2023-2024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3년 10월19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추진해 65세 이상 코로나19 접종률 49.2%(전국 41.2%), 감염취

약시설 82.9%(전국 5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예방접종 분위기를 높이고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남지사 등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을 실시하는 등 접종 호조에 앞장섰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접종 현황을 관리하며, 미접종자 보호자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독려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김재정기자



광양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광양교육지원청은 24일 “전남 광양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학교운영위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내실화를 위한 ‘2024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운영위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이해 강의, 진로진학 관련 특강 등이 이뤄졌다.

학교운영위원회 이해 강의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과 발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설명하고, 현장 경험과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제준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은 학교 운영의 핵심이며, 지속적인 연수 실시는 학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양홍열기자

동구-KT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사업’ 협약

광주 동구는 24일 “1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해 지난 22일 KT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KT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KT 광주타워 내에 다회용컵 회수기를 설치하고, 협업 카페(23년 10개소→24년 20개소) 대한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사업은 협업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음료 주문 시 1회용컵 대신 동구가 제공하는 다회용컵에 음료를 담아주고, 사용한 컵은 청사 내 위치한 다회용컵 회수기(3대)에 반납하면 된다.

해당 다회용컵들은 세척 전문업체가 매일 수거해 세척·살균 처리 한 뒤 협업 카페에 배송,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은 일상 속 커피 한 잔으로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것”이라



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회용컵 사용에 동참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향한 동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22년 10월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며 전 직원이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정은정기자



보성경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

보성경찰서는 24일 “전날 경찰서장을 비롯해 보성군청, 보성교육지원청 및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통행량이 많은 보성역 삼거리에서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전단지·홍보 물품 등을 배부해 운전자 주의를 환

기하는 등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양백승 경찰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 횡단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행해 통과하는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보성=임병연기자

마리우, 가족돌봄아동 약달력 100개 전달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부는 24일 “약달력 등을 개발·판매하는 업체인 마리우가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약달력 10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마리우는 주간·월간 단위로 약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돕는 달력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 2009년 약달력을 개발해 사업을 시작했으며 아픈 부모 또는 조부모를 돌보는 가족돌봄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후원을 했다.

서말희 마리우 대표는 “학을 이어가며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을 찾아 지원한다는 광고를 보고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노력은 보지 못했던 곳을 보게 되는 것 같다. 소상공인이지만 아이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은영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은 “마리우 대표님의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공감과 관심에 감사하다”며 “매일 보호자의 약을 챙겨야 하는 아동들에게 약달력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성학기자

나주소방-나주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 안전’ 협약

나주소방서는 “최근 소방서 회의실에서 나주 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 안전환경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연호 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와 김귀순 나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 등 집행부가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보육교사 응급상황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등 맞춤형 소방안전 체험교실 교육 지원이다.

김귀순 나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연호 나주소방서장은 “협약을 통해 나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나주시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들에게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나주시지역 안전을 위해 나주소방서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나주=정정환기자

모임

▲담양 크린동우회(회장 박병근) 4월 모임=25일(목) 오후 6시30분 로빈식당, 담양군 월산면 도계길 15-69(충무 서동선 010-402-9480).

행사

▲담양 대전농협 종합청사 및 영농자재배회점 준공 기념식=28일(금) 오전 10시30분 대전농협 2층 대회의실,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288 대전농협(조합장 최용규, 061-383-6791·3).

▲담양시장 개장기념식=26일(금) 오후 2-3시 담양시장 정문 광장, 담양군 담양읍 담주4길.

▲제45회 담양군민의 날 기념식=5월3일(금) 오후 1-4시 담양문화회관, 담양군 담양읍 지점6길 29 담양군 행정과 행정팀(061-380-3175).

결혼

▲김경운(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이태복씨 장남 태홍(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군, 노수근·이명자씨 장녀 지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양=28일(일) 낮 12시30분 샌트럴광주호텔&레지던스 파레스가든홀(010-4541-2580).

▲박상훈·김영숙씨 장남 준성군, 이태일·김정숙씨 장녀 은지양=27일(토) 오전 11시 광주 까사디루체 1층 루체홀(062-710-4000).